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폴코스 참가자들이 지난 1일 영산강변을 달리며 남도의 봄을 만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부분별 우승자 인터뷰

이색 참가 선수들

“가족들도 참가...우승 약속 지켜 기쁨 두 배”

플코스 남자 김수용

“가족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기쁨이 두 배입니다.”
대전에서 달려온 김수용(38)씨가 2시간 34분28초의 기록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으면서 3·1 마라톤 대회 플코스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이다.



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대회 2연패를 위해 남다른 각오로 썼지만 앞선 대회에서 중도 탈락했던 만큼 걱정도 있었다.
김씨는 “앞서 고성 마라톤에 참가했다가 38km 지점에서 기권을 했었다. 이번에는 페이스 조절을 잘해서 무사히 결승선에 들어왔다. 지난해보다 더 3분 정도 단축된 기록으로 우승을 했다.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국가대표 출신...육상 꿈나무 키우기에 최선”

플코스 여자 이정숙

“연습중 팔에 부상을 당해 걱정했는데 우승까지 하게 돼 영광입니다. 그 몸으로 또 어디 가느냐는 남편의 물음에 대답할 말도 생겨 더욱 기쁘고요.”
이번 우승으로 대회 3연패를 거머쥔 이정숙(48·천안시 와촌동)씨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3연승의 저력을 과시해 참가자들과 팬을 놀라게 했다.
마라톤 국가대표 출신으로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육상 꿈나무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씨는 이미 국내 마라톤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실력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대회를 앞두고 부상을 당해 걱정이 많았는데 광주에 간다는 마음에 힘이 생겼고, 대회 참가사흘 전 김스를 풀어 가볍게 뛰어본 결과 괜찮을 것 같아 ‘서브 쓰리’만 하자며 조심스럽게 뛰었는데 예상보다 기록이 잘 나온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씨는 “우승 자신감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육상계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老? NO... 뛰는게 행복, 난 아직 팔팔하오”

최고령 91세 김권재용

“똥깎고 전통 있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돼 기쁘고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면 해요. 저를 보고 다른 분들도 힘을 얻길 바랍니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사는 김권재(91)옹은 아직 청춘의 삶을 산다. 매일 새벽 4시쯤 잠자리에서 일어나 집 근처에 있는 광천 초등학교를 찾아 1시간 정도 운동장을 돈다. 비가 올 때는 헬스장을 찾아 운동을 할 만큼 노력과, 이렇듯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주위 사람들이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며 입을 모은다. 그 덕에 ‘순천 남승룡 마라톤대회’ 5km 두 번의 도전에서도 모두 완주를 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이 대회 최고령 출전 기록보유자이기도 하다.



그가 올해 광주일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은 순천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체육교사로 교편을 잡고 있는 아들 김용우(59)씨의 역할이 컸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자(父子)간의 이야기를 함께 달리며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들 김씨는 “아버지가 달리기를 한 후로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며 “나날이 청춘을 살고 계신 아버지를 보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김 옹은 지난해 계간 ‘Asia 서석문화’ 시 부문 제20회 신인문학상을 받아 등단한 신인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마라톤이 좋아”

하프코스 남자 박승근

“우승트로피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달랠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 박승근(45·영암군 청)씨가 이번에도 가장 먼저 하프코스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대회 2연패를 이뤘다.
박씨는 “지난 2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지만, 우승은 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 육상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던 박씨는 전국 마라톤대회에서 40차례 우승을 차지한 실력파.
박씨는 “마라톤은 작은 돈으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다. 또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를 이기는 과정이 좋다. 애들하고 많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항상 가족들에게 미안한데 우승 트로피를 안고 가게 돼서 한결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비결이요?...평소 3층 계단 왕복운동 했어요”

하프코스 여자 송미숙

“땀밖에 우물을 해 기쁨이 더욱 큼니다. 꾸준히 체력을 보강해 내년 대회도 좋은 성적을 내겠습니다.”
하프코스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송미숙(44·군산)씨는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3·1마라톤에 출전해 온 개근생이다. 성적도 좋다.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이다.
지난해와 다르게 하프코스가 옛 도청에서 출발하는 걸 몰랐던 송씨는 “월드컵 경기장에 두고 온 차를 빨리 가져갈 생각에 실재없이 달렸다”고 여유있게 농담을 건넸다.



출발이 약간 늦었지만, 베테랑답게 안정적인 페이스를 펼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라톤 연습과 더불어 점심시간 틈틈이 시간을 내 회사 계단에서 운동을 하는 등 생활속 운동으로 대회를 준비했다.
송씨는 “3층 높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왕복하며 여러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 체력 관리의 비결이다”고 귀띔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일마라톤 뛰다보니 이젠 마라톤맨 됐어요”

7회 연속 참가 임내현 국회의원

“좋은 책”과 “좋은 운동”은 사람의 양날개와 같습니다. 제 건강관리는 물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신념을 전파하기 위해 매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임내현(광주 북구) 의원은 광주교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3·1절 마라톤과 첫 인연을 맺은 이후 2008년부터 올해까지 7회째 대회에 참가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대회직전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강령군 피로탕에 평소 기록(1시간 50분대)보다 다소 저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02년 전주지검장 재직시 하프 마라톤 종목에 참가하기 시작, 매년 광주일보 3·1 마라톤 하프종목에 출전할 정도로 마라톤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임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 마라톤포럼(30개 클럽·회원 2000명)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육상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1998년 7월, 순천지청장 재직시 진주지청과 공동 주최로 마라톤을 통한 영·호남 화합행사를 기획,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당시 행사는 지리산 노고단에서 영·호남의 휴과 물을 합수함도(合水合土)한데 이어 이튿날 광양~하동대교간 4km 단축마라톤을 개최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임 의원은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는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한 의미있는 날에 열리는 대토로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광주시민들과 함께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알바하면서도 일주일 4번 씩 달렸죠”

10km 남자 김보건

10km 남자부 우승은 학창시절부터 오래 달리던 김보건(25·전주)씨에게 돌아갔다.
군 전역 후 지난해 8월 ‘운고를 마라톤 클럽’에 참가해 본격적으로 마라톤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그는 “처음엔 혼자 뛰었지만 달렸지만 팀에서 자세, 호흡법, 스트레칭 등을 배운 뒤엔 실력이 급상승했다”고 한다.
대학생인 김씨는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일주일에 4번 꼬박꼬박 달리기를 하는 ‘노력파’다. 그



는 뛰고 난 후 샤워를 할 때 느끼는 완주의 희열을 마라톤의 매력으로 꼽았다.
김씨는 “마라톤을 한다고 말하면 친구들도 이상하게 볼 정도지만, 과학적인 운동이라 조금만 연습해도 실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함께 달리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마라톤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는 김씨의 목표는 실업팀 입단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가족들과 함께 참가해 우승...너무 기뻐요”

10km 여자 송미경

“이번 대회는 가족들과 함께 달려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가족의 화합과 건강을 위해 계속 뛰겠습니다.”
10km 여자부 우승은 김씨 마라톤클럽 송미경(44·전북 김제시)씨가 40분50초20의 기록으로 지난해에 이어 2연패했다. 가정주부인 송씨는 5년여전부터 건강을 위해 취미삼아 운동을 시작했다가 마라톤의 매력에 푹 빠졌고, 각종 대회에 참가해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송씨는 김씨 마라톤클럽 50여명의 회원들과 매주 휴일에 1시간 30분 코스의 산악



훈련을 하는 한편 2~3일 간격으로 가족들과 운동삼아 시민운동장을 달리며 이번 대회를 준비해왔다.
송씨는 그동안 3·1절 마라톤대회에 혼자 참가해왔지만 올해 대회만큼은 신랑 박경인(48)씨와 아들 찬호(20)·찬원(18)도 함께 뛰며 가족의 화합을 다졌다. 송씨는 “내년 대회에도 가족들과 참가해 좋은 기록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200회 완주 성공 안병철씨

“마라톤은 삶의 희망...생일이라 더욱 기뻐”

“기분 좋은 생일선물을 받았습시다.”
논산 마라톤연합회 소속의 안병철(63)씨가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서 200회 완주에 성공했다.
광주와의 인연은 특별하다. 지난 2010년 봄, 안씨는 3·1 마라톤에서 100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마라톤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이룬 값진 성과였다. 자신의 생일날

다시 광주를 찾은 안씨는 회원들과 함께 달리며 200번째 완주에 성공했다.
안씨는 “1999년 전경기관(달팽이관)이 상으로 마음대로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개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마라톤을 통해 새로운 나로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마라톤에 대한 애정을 밝혔다.
마라톤 입문 첫째 하프 코스에 이어 42.

195km 완주를 이뤄낸 안씨는 해마다 전국을 돌며 질주를 하고 있다. 순탄한 질주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 큰 위기도 있었다. 2007년 보스턴 마라톤을 준비하던 안씨는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으며 출발선에 서지 못했다. 그러나 1년을 기다린 끝에 3시간 41분의 기록으로 결승을 통과하는 기쁨을 누렸다.
안씨는 “마라톤은 나의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됐다. 생일날 광주에서 100번째에 이어 200번째 완주도 했다. 70살에 400회 완주를 하는 게 목표다. 앞으로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